

새만금개발청, 새만금 산단 통합환경인허가 사업장 대상 '찾아가는 맞춤형 컨설팅' 실시

- 새만금청, 전북환경청과 함께 첨단기업 안착 위한 선제적 환경 컨설팅 제공

□ 새만금개발청(청장 문성요)은 6월 환경의 날을 맞아 전북지방환경청과 함께 새만금 국가산단 내 통합환경인허가* 관리대상 입주기업체를 방문하여 '찾아가는 맞춤형 환경컨설팅'을 실시했다고 밝혔다.

* (통합환경인허가) 대기, 수질 등 환경매체별 파편화된 허가관리를 사업장 단위로 통합하여 7개 법률 10가지의 인허가 신고 통합 및 지도·점검(기후에너지환경부)

○ 이번 컨설팅은 복잡하고 고도화된 환경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입주기업의 애로사항을 선제적으로 해소하여 환경 법규 위반율을 줄이고, 기업의 자율적인 환경관리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.

□ 특히, 이번 지원활동은 통합관리사업장 사후관리 관할부처인 전북지방환경청과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을 직접 연결하여 전문성 있는 컨설팅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장의 지원혜택 체감도를 높였다.

○ 컨설팅에서는 △매체별 법정관리기준 및 통합허가조건 준수요령, △배출방지시설 종류별 적정 운영방법, △주요 위반유형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, 제도 개선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도 함께 청취했다.

□ 이번 활동은 지난 5월, 새만금개발청이 광주지방국세청과 합동으로 진행 하였던 '입주기업 밀착형 세정 지원'에 이은 두 번째 부처 협업사례로,

○ 새만금개발청은 앞으로도 유관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입주기업들이 인허가 사후관리 단계에서 겪는 부담을 덜어주는 한편, 첨단기업의 조기 안착을 위한 선제적 환경관리에도 힘써나갈 계획이다.

□ 윤진환 개발전략국장은 “새만금개발청은 산업단지를 유지·관리하는 역할에 머무르지 않고, 기업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유기적인 산단 생태계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.”라면서,

○ “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여 새만금 국가산단 입주기업이 안심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.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	개발전략국 산업단지입주관리단	책임자	과 장	최은국	(063-733-1260)
		담당자	주무관	최미소	(063-733-1252)
			주무관	송성완	(063-733-1257)

